

사진: THE DESERT MORNING NEWS



고든 비 힝클리 회장(오른쪽)과 제일회장단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이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 기공식에 참여하고 있다.

계속되는 성전 사업

타히티 파페에테 성전

2006년 11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타히티 파페에테 성전을 두 번에 걸친 모임을 통해 재헌납하였다. 1983년 10월에 처음으로 헌납된 이 성전은 15개월 간의 보수 공사를 통해 침례탕과 인봉실이 확장되었고, 부모에게 인봉되는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센터가 마련되었다.

솔트레이크 시티, 뉴칼레도니아, BYU하와이 캠퍼스 및 타히티 지역의 스테이크 센터에 증계된 재헌납식에는 약 1만 명의 타히티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2006년 12월 16일,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 기공식을 감리했다. 이 자리에는 제일회장단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사회를 맡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와 그 밖의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이 함께 했다.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은 59미터 높이의 단일 첨탑 꼭대기에 2.7미터 높이의 모로나이 천사 상을 올릴 예정이다. 성전은 오커 산 자락의 약 13,500 평 부지에 건립될 것이며 동쪽으로는 와사치 산맥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오커 마운틴 성전이 세워질 유타 주 사우스 조든



유타 오키루틴 성전

시는 세계 최초로 두 개의 성전이 있는 도시가 된다. 유타 조던 리버 성전 역시 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새로 세워지게 될 이 성전은 유타 주의 13번째 성전이 될 예정이다.

**과테말라
깨찰테낭고**

유타 오키루틴 성전 기공식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과테말라 깨찰테낭고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성전은 과테말라의 두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깨찰테낭고에 세워질 이 성전은 힝클리 회장이 말하는 소규모 성전이 될 것이다. 199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회장에 의해 소개된 소규모 성전은 더 많은 성도들에게 성전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규모가 큰 성전들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

기타 성전들

브라질 쿠리티바, 유타 드레이퍼, 파나마 파나마시티,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 및 아이다호 트윈폴즈 성전이 건설 중에 있다.

최근 건축 계획이 발표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거나 현재 운영중인 교회의 성전은 총 135개이다.

전 세계 성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교회 성전 웹사이트(www.lds.org/temples)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강연을 통해 가족 역사 온라인 작업의 미래를 살펴보다

에린 핏처, 교회 잡지

가 족 역사 탐구의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라고 2007년 1월 9일에 열린 강연에서 리치 러닝 형제가 말했다. 이 강연은 Utah Genealogical Association (유타 계보 협회)의 후원으로 해마다 열리는 Salt Lake Institute of Genealogy(솔트레이크 계보 학회)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약 200여 명이 “화강암 산 동굴 기록 보관소를 열며”라는 제목의 이 강연에 참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회의 제작 관리 책임자들과 교회의 가족 역사부는 계보 탐

구의 기술적 진보를 스캐닝과 색인 작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제품관리 부서의 책임자인 러닝 형제는 이러한 변화들을, 계보 조사자들을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드는 단계로 묘사한다.

FamilySearch 스캐닝

러닝 형제에 따르면, 이러한 디지털 고속도로는 교회의 화강암 산 동굴 기록 보관소에 있는 약 50억 건의 역사적 문서들을 마이크로필름 형태에서 인터넷으로 접

근 가능한 디지털 영상으로 전환하는 FamilySearch 스캐닝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와사치 산맥에 위치한 화강암 산 동굴 기록 보관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족 역사 기록들을 소장하고 있다. 직원들은 선진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곳에 보관된 마이크로필름들을 고품질의 디지털 영상으로 전환한다.

FamilySearch 스캐닝 제작 관리자인 데릭 돕슨 형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스캐닝 작업은 이 보관소에서 5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의 기술적 발전은 이 과정을 몇 년 전에 비해 적어도 네 배는 빠르게 만들었고 화질 역시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지금은 약 20분 정도면 마이크로필름 한 롤에 담긴 정보를 1,200여 개의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러닝 형제는 이러한 디지털화 작업으로 인해 계보 사업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조사자들은 4,500개의 가족 역사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마이크로필름들을 주문하는 대신 가정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을 통해 문서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의 인터넷 기반 계보 서비스인 FamilySearch는 중요한 계보자료들을 입

수하여 보존하고, 이러한 기록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FamilySearch 스캐닝은 이러한 주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작업입니다”라고 가족 및 교회 역사부의 공보 관리자인 폴 노타 형제는 말했다.

FamilySearch 색인 작업

FamilySearch 스캐닝과 연계하여, 수 천 명의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정보 색인도 만들어지고 있다. 자원 봉사자들은 디지털 영상으로 되어 있는 역사적 문서들로부터 가족 역사 정보를 추출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관련 자료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종전에는 초출 작업이라 불리웠던 FamilySearch 색인 작업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역사적 문서들을 다운로드 받은 후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 작업은 한 시간 이내로 완료 가능하다.

돕슨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시스템은 단시간 안에 방대한 양의 작업을 마칠 수 있게 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계보 탐구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편하고 알기 쉬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름들을 색인 작업하기 위해 삼십 분에서 한 시간 가량을 투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역시 FamilySearch 색인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초판 FamilySearch 색인은 2005년 9월에 선보여졌으며, 2006년 말까지 1,200개 스테이크와 협력 단체의 25,000명 이상이 FamilySearch 색인 작업에 자원 봉사자로 등록하였다.

이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 회원들은 해당 지역의 와드나 지부 지도자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FamilySearch 색인 작업의 자원 봉사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노타 형제는 계보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드는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계보 사업에 관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기록들을 사용가능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파악하고 그들 자신을 조상들에게 연결시킬 수 있게

이제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스캔된 정보를 만들어 가족역사 조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FamilySearch 스캐닝과 Family Search 색인 작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는 웹사이트 www.familysearch.org 또는 www.familysearchindexing.org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지역 사회를 단합시킨 캐나다의 종교를 초월한 미술 전시회

스테파니 룡, 교회 잡지

교회의 신회원이며 와드 선교사였던 손 플린트 형제는 그가 사는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무스조 시의 모든 사람들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나누기를 원했다. 플린트 형제는 교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무스조에 퍼져 있으며 이로 인해 선교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교회로 주의를 끌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통해 교회에 대한 많은 그릇된 인식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고 플린트 형제는 말했다.

플린트 형제는 와드 선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대립을 피하면서도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지역 사회와 30개 이상의 다른 교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이라는 공통된 끈으로 모든 사람을 화합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끝에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복음 미술 전시회를 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플린트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교사들 중 한 명이 교회에서 후원하는 미술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전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무스조 지역의 모든 교회를 초대하여 각자의

작품을 전시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지요.”

이 아이디어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6년도 복음 미술 전시회가 탄생했다. 무스조 와드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전시회가 홍보되었고 계획이 세워졌다.

40개의 대형 컬러 포스터와 다른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종교적 작품을 전시하도록 독려하는 초대장이 제작, 배포되었다. 와드 선교 책임자인 게리 밀러 형제에 따르면, 32,000개 이상의 소형 포스터 역시 회원들의 손에 의해 마을 곳곳에 전해졌다.

또한 밀러 형제는 와드의 청소년들 역시 이 작업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청남들은 회장인 론 바치우 형제의 지도 아래 미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150개의 이젤(역주: 그림 그릴 때 화판을 받치는 삼각틀)을 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신문인 *Times-Herald*는 다가오는 전시회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 CHAB 역시 전시회에 대한 방송을 했다.

하지만 플린트 형제는 전시회를 며칠 안 남긴 시점에서 전시회가 과연 열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전시회를 사흘 앞둔 시점까지도 다른

교회들이나 비회원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플린트 형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남은 이틀 동안의 간절한 기도 끝에, 성 안드레 연합 교회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 속한 10명의 주민들이 작품을 출품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전시회는 예정대로 열렸고 여섯 개 부문에 걸쳐 총 140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선교사들은 전시회장에서 관람객들의 질의에 답했고 교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

전시회 관람 인원이 수백 명까지는 아니었지만, 플린트 형제는 그가 바랐던 대로 무스조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 친근한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는 데 성공했다.

“어떤 종류의 대립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영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플린트 형제가 감상을 말했다.

자신이 소장하던 1500년대 작품인 메이슨 신전의 티베트산 목제 복제품을 전시회에 출품한 빅키 스파이서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평소에 저는 유대교를 믿는 신앙 때문에 종교적 미술 전시회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름다운 작품들도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물론 교회 안의 우정을 발견했습니다.”

미술 전시회가 연례 행사로 자리잡힐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또 다른 전시회를 열자는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다.

“성 안드레 연합 교회는 이번 미술 전시회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전시회를 연

것은 멋진 생각이었으며 내년에는 자신들의 교회에서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내년에도 이러한 전시회에 참여하고 싶으며, 그들의 친구에게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라고 플린트 형제는 말했다. ■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경전 인터넷으로 제공되다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약 125,000명의 교회 회원들은 앞으로 온라인 후기 성도 경전을 통해 모국어로 합본 경전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는 2007년 1월부터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몰몬경 합본 공식 번역본을 <http://scriptures.lds.org>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판 후기 성도 경전은 종전까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되었다.

교회 Curriculum Department[교과 과정부] Internet Coordination Group[인터넷 조정 그룹]의 책임자인 론 슈웬디먼 형제에 따르면, 기존의 인쇄판 경전을 인터넷판으로 변환하는 데에는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은 변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행해지는 대조, 검토, 수정 작업에 의해 좌우

된다.

그밖의 몇몇 언어들도 인터넷에 올리기 위한 변환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경전 위원회의 서기인 케이 앤더슨 형제는 “포르투갈어가 곧 제공될 예정이며 다른 언어들도 뒤를 이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슈웬디먼 형제는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회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모국어로 후기 성도 경전을 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현재 우리는 경전 위원회와 공동으로 차후에 작업할 언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금년에 가능한 많은 종류의 언어로 선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스페인어판 인터넷 경전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판 온라인 경전은 몰몬경 합본(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과 경전 안내서(뜻풀이와 전후 참조 성구를 곁들인 복음 주제 목록)를 비롯하여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발췌문, 교회 역사 연대기, 성경상의 사건 및 교회 역사와 관련된 사진 및 지도와 같은 기타 학습 자료에 대한 링크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경전 자료를 이용하려면 <http://scriptures.lds.org>로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English”를 클릭한 후, 메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

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



몰몬경 합본과 관련 학습 자료들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제공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통가어와 아이티어 몰몬경 합본

통가어와 아이티어를 사용하는 교회 회원들은, 처음으로 모국어로 된 몰몬경 합본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80,000명의 통가어 사용 회원들과 14,000여 명의 아이티어 사용 회원들은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및 경전 안내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전 번역 관리자인 토드 해리스 형제는 이 몰몬경 합본에 새로운 교회 지도 및 사진, 교회 역사 연대기 등이 포함될 것

이라고 말했다.

경전 위원회의 서기인 케이 앤더슨 형제는 통가어로 된 몰몬경은 1946년에 출간되었고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는 1959년에 출간되었지만 이번 합본 경전의 출판으로 인해 처음으로 세 권의 경전이 한 권으로 엮여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이티어 몰몬경은 1999년에 나왔지만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는 이번 합본 경전 출판을 통해 처음으로 선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가어와 아이티어 합본 경전 모두 몰몬경의 최신 번역본과 주석을 담고 있다.

해리스 형제는 번역자, 감수자, 신권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팀은 선정된 언어로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 함께 일하며, 이를 완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각의 언어에 따라 상이하다고 말했다.

교회의 제일회장단은 회원들에게 개인 경전을 소장하여 정기적인 학습과 교회 모임, 임무지명 등에 활용하라고 권고해오고 있다. ■

후기 성도 자선회, 어부들을 바다로 귀환시키다

교회의 인도주의 단체인 후기 성도 자선회는 또 다른 자선 단체와 함께 어선 복구 작업을 도왔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반다아체 지역에 거주하는 27명의 어부들이 조업을 재개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용 선박 볼리비아호는 2004년에 닥친 쓰나미로 인해 파손되어 크롱아체 강에 침몰되었다. 두 달여 동안 물 밑에 잠겨 있었던 볼리비아 호는 미 육군과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의 도움을 받아 인양된 이후 그곳에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후기 성도 자선회와 오스틴 국제 구조 및 구호 기구(Austin International Rescue and Relief Operations)는 이 대형 어선의 복구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 작업은 2006년 11월에 완료되었다.

선상에서 지역 사회의 이맘(이슬람교 사회의 지도자)이 축복을 한 후, 물 위에 배를 띄웠다.



배의 본 소유주와 그의 아내는 쓰나미 때 목숨을 잃었으나 그들의 세 자녀가 생존하여 앞으로 이 어선을 통해 벌어들이게 될 수익의 50퍼센트를 받게 될 것이다. ■

후기 성도 자선회는 2004년 동남 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의 피해로 파손된 대형 어선 볼리비아 호의 복구를 도왔다. 어선을 통해 얻게 될 수익의 절반은 쓰나미로 사망한 소유주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교회, 토네이도의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 주민들을 돕다

세차례의 토네이도가 미국 플로리다 중부 지방의 20여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지 24시간이 채 안 되었을 때, 500명의 교회 회원들이 구호의 손길을 뻗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 2007년 2월에 불어닥친 이번 토네이도로, 14개의 회원 가정을 포함한 1,500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되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비록 회원들의 가옥이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피해 지역의 회원들과 선교사들 모두 무사했다. 신권 지도자들은 집을 잃은 14가족들이 거처를 옮기는 일을 도왔다.

약 400명의 후기 성도 자원 봉사자들은 청소와 잔해 제거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지시 사항을 전달받기 위해 올랜드 교회 건물에 모였다. 도시의 다른 지역에는 10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이 데일랜드 지역의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모였다.

교회는 인력뿐만 아니라 방수천, 발전기, 전기톱, 장갑, 망치, 못, 청소용품 세트 등을 제공하였다.

이번 복구 작업에 참여한 오비에도 지역의 교회 회원 브래디 닉슨 형제는 “피해

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적어도 그들이 생존했으며 우리가 그곳에 와서 돕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고마워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교회는 미리 식량과 식수를 포함한 필수품들을 플로리다에 위치한 교회 창고에 갖추어 놓고 있는 상태였다. ■



교회 회원들이 플로리다 주의 대형 토네이도로 발생한 잔해들을 치우고 있다

교회, 수단 피난민들에게 구호품을 보낸다

2004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수단과 차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반군과 정부 조직들간의 계속되는 무장 충돌로 야기된 인도주의적 필요사항에 대해, 여러 단체들과 손을 잡고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교회의 긴급 구호 활동은 피난민들에

게,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보충제 Atmit 약 363톤을 지원하였다. 또한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opment, Red Crescent Society, International Medical Corps.와 같은 협력 단체들의 공조 가운데 의료용품, 위생용품 세트와 담요가 보내졌다.

2003년 이후 수단의 다르푸르 지방은 분쟁 지역이 되어 왔으며, 2백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교회 복지 서비스는 계속해서 지역 상황을 주시하며 협력 단체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2007년 6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7년 6월 호 함께 나누는 시간 자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기억하라”를 참조한다.

1. 신문 기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어린이들에게 복음 그림 패킷 208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다. 기사는 여섯 가지 사항을 알아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종이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낱말들을 적은 다음 보여 준다. 어린이들에게 각각의 낱말에 대한 답을 찾아 달라고 한다. 마태복음 3:13~17을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가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가 될 수 있으며, 어디서에 대한 답은 “요단 강에서”가 될 수 있다.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면 내용을 종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음악 책임자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침례”(어린이 노래책, 54~55쪽)를 부를 수 있게 한다. 처음 다섯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곡의 1절에 담겨 있으며, 왜에 관한 답 역시 2절에 나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모범이 되셨으며, 우리 모두는 침례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2. 빵 한 덩어리와 물이 담긴 주전자를 보여 준다. 복음 그림 패킷 604 (성찬 전

달)를 보여 준다. 어린이들에게 평범한 빵과 물이 성찬 빵이나 성찬 물과 어떻게 다른지 물어본다. 성찬은 신권의 권세에 의해 축복되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해 준다.

신앙에 충실함 책자의 성찬에 관한 부분과 복음원리 제23장을 활용하여 “누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누가 성찬을 전달합니까?” (신권 소유자, 대체로 집사), “성찬이 전달되는 동안 우리는 무엇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와 같은 질문들을 만든다. 어린이들이 성찬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질문한다. 성찬에 관한 사진을 이용하여 퍼즐을 만든다. 사진을 질문 개수만큼의 퍼즐 조각으로 오린다. 각각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때마다 정답을 말한 어린이가 나와 퍼즐 한 조각을 칠판에 붙이게 한다. 퍼즐이 완성되면 구주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성찬은 정숙함을 요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3. 노래 발표: “주님의 복음 따라”(어린이 노래책, 72쪽).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나요?”라고 물어본다. 많은 아이들에게 답할 기회를 주어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그것들을 칠판에 적는다.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 주겠다고

말한다. “주님의 복음 따라” 1절을 불러준다.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주님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 이 노래의 1절을 가르친다. 어린이들에게 칠판에 적혀 있는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물어본다. 이 노래의 후렴구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하면 복음에 따라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후렴구를 부른다. 후렴구는 결심 의지를 담고 있으며 반복된다고 설명한다. 말과 행동이란 표현을 가리킨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은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에는 경전 읽기가 있어요” 혹은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이번 한 주일 동안 “복음 생활”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복음 생활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다.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관해 간증한다. ■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사진 촬영: 박영석



저는 이제 백 살이 넘었습니다. 아마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이 땅에 주님의 참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던 그 무렵에 저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미 손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오십이라는 나이는 저물어 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저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간 삶보다 남은 삶이 짧다는 생각으로 늙음이란 단어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참된 복음은 찬란한 여명이고 푸르른 나무였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전도 읽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아 가면 갈수록 저와 아내의 마음속엔 어느새 ‘늙음’ 대신 ‘열정’과 ‘봉사’라는 기운찬 언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보내는 하루는 지난 세월을 모두 합친 것보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청운동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무렵, 저희 부부는 앤드루스 선교부 회장님께 부산에 가서 전도할 것을 부름 받고 선교사 네 명과 함께 지금의 수정 와드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었지만 부름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바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먹을 생각도 못 할 정도로 바쁘게 전도를 하였고 온종일 굶은 적도 많았습니다. 어느새 회원은 백 명 가까이로 늘어났고 저는 교회의 관리인 일까지 하면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름보일러가 없어서 난방을 위해서는 연탄을 떼야 했는데 토요일이면 밤새도록 8개의 연탄을 떼며 예배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부 회장이 되기도 하고 관리인이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 살이 넘어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의 기억력은 그렇게 좋지 못한 가 봅니다. 지난 5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안개처럼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 년, 이십 년, 길고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뚜렷하게 생각나는 것은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행복했다는 사실

입니다.

아내는 몸져 누워있고 저는 병들어 근래 3년 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도 교회에 참석할 수 없어 신권 형제들이 집으로 찾아와 성찬을 나눠줍니다. 아파서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면서 때로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온 몸을 바쳐 평생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싶어 슬프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기도했습니다. 늙고 병든 육신은 안식일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누워있지만 마음만은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 지금도 오래 오래 기도를 합니다.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느새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시 행복해집니다. 멀리 떠날 날을 가까이 두고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잘되어도 하나님, 못되어도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믿으십시오. 의심 말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백 살 넘게 살면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간증이자 여러분에게 항상 전하고 싶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여호와와의 생명수 안에서 길이길이 생활하다가 먼 후일에 하나님의 문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먼저 간 제가 웃음으로 나가서 여러분께 인사하고 영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이 기사는 이수강 형제의 간증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이수강 형제가 몸담고 있는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의 김양우 형제와 신영숙 자매가 이수강 형제의 간증을 녹취하고 기록하는 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미 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가 남긴 다음 명언은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크다. “모든 세대는 지난 유행을 비웃는다. 그러나 새 유행은 종교처럼 따른다.” 유행을 추구하는 것이 곧 진리이자 선한 일이 되는 요즘, 표준을 따른다는 것은 종종 낡고 고루한 일로 치부된다. 연예인들이 입고 나온 옷과 최신 머리 모양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선정적인 문학과 경박한 음악들은 청소년들의 가치판단을 흐리게 한다. 유행이라는 이름의 혼란과 불안, 유행이라는 이름의 낮은 가치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시대에 선지자 고든 비헝클리 회장이 전한 말씀은 청소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있었던 세대들 중 가장 훌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누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표준, 그 자유로운 가치

구보다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의무에 더욱 충실합니다. 유혹에 더욱 강력하게 맞섭니다.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리야호나, 2003년 11월호, 82~85)

수시로 변하는 유행과 달리 교회의 높은 표준은 변하지 않는다. 교회는 변해가는 풍습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관습에 타협하고자 도덕적인 표준을 변경하지 않는다. 표준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구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표준은 유행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한다. 또한 표준은 헛된 욕심과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에서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한다. 청소년들이 단정한 복장을 할 때,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경 되지 않는 주님의 표준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표준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잘 나와 있다. 청소년들이 흔들림 없이 표준을 지킨다면 고든 비헝클리 회장의 말처럼 주님은 기꺼이 청소년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다음 편지는 십대 자녀를 둔 광주 스테이크 조용현 회장이 직접 쓴 것이다. 편지에 나와 있는 권고와 애정의 말은 이 시대 모든 부모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사진: 최영민, 모델: 강영민, 스타일: 권영민, 헤어: 김민지, 메이크업: 김민지, 스타일: 권영민, 스타일: 권영민, 스타일: 권영민)

사랑하는 십대의 자녀에게

얼마 전 금식 간증 시간에 자발적으로 연단에 나가 훌륭한 간증을 전하던 너의 모습을 얼마나 대견스럽고 벅찬 마음으로 보았는지 모른다.

새벽반 세미나에 스스로 일어나 다녀오고 안식일이면 교회에서 봉사하던 네 모습들이 자연스레 떠올랐고 하나님께 이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했다.

나의 청소년 시절에는 결코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을 보며 싱클레 회장님께서 너희들을 가리켜 “... 대단히 신뢰하며, 책임과 기회뿐 아니라 유혹 또한 가장 큰 이 시대에 태어난 특별히 선택 받은 영들”이라고 하신 말씀에 공감했다.

이 말씀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뢰와 자랑스러움뿐 아니라 선지자의 깊은 염려가 담겨 있구나. 이 염려란 너희들이 헤쳐 나가 기에는 이 유혹의 바다가 너무 넓고 깊다는 것이며 너무 많은 십대의 청소년들이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따르기만 하면 능히 목적지로 인도하는 등대가 있구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책자를 읽다가 이 등대의 빛을 느꼈다. 그 소책자를 한번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거듭 반복해서 읽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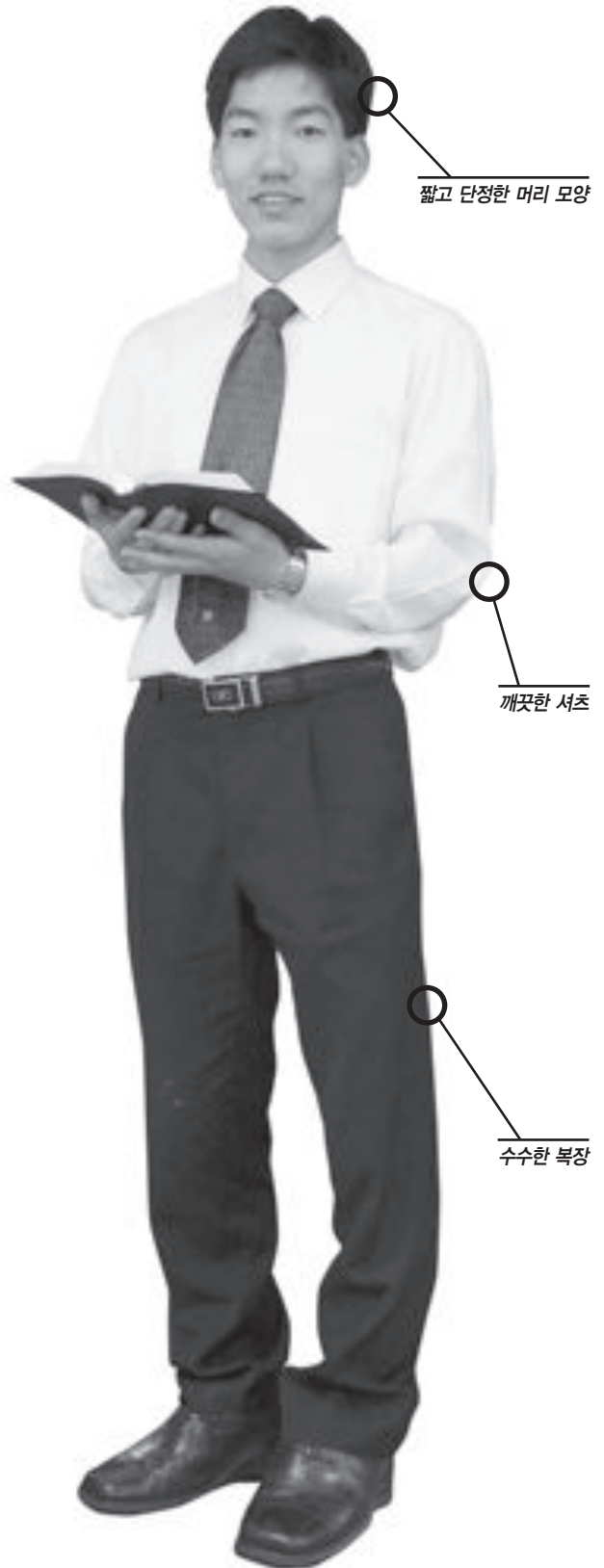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라는 부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네게 주어진 신성한 임무를 가벼이 여기지 말기 바란다. 선지자가 제시한 표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감사, 교육, 친구, 복장과 외모, 오락과 대중 매체, 언어, 데이터, 순결, 정직, 건강과 봉사, 안식일 준수 등에 대한 표준들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지혜와 자긍심의 원천이 될 것이다.

얼마 전 너의 두발 문제로 대립 되었던 일이 생각나는구나. 너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나와 너 사이의 대립이나 갈등이 아니라 너와 표준 사이의 문제란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숙고해 볼 때 표준을 지키기가 더 쉬울 것이다. 표준을 즐겨워하고, 표준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표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바란다. 싱클레 회장의 신뢰에 나의 신뢰를 더한다.

너의 사랑을 알고 있단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 4월 어느 밤에 아빠가 -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Charity Never Faileth



1842년 3월 17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과 미망인과 고아들을 도우며 자선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취지아래 상호부조회가 조직된 이후로 165년이 지났다. 에머 스미스를 초대 회장으로 하여 18명의 자매들이 모여 조직

된 상호부조회는 이제 전 세계적

으로 500만 명이 넘는 회원 수를 가지고 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이 상호부조회에 대해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단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상호부조회는 세계 각국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3월 한 달 간 전국의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는 상호부조회 창립을 기념하는 각종 모임이 있었다.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상한 곳을 보듬으며 빈 곳을 채워주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섬세한 손길은 재능을 발표 할 때도 빛을 발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현장들을 소개한다.

합창부터 연극까지

해마다 찾아오는 창립기념일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하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달씩 걸려서 준비하는 합창과 연극 등에는 자매들의 재능은 물론이고 열정과 노고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래서 때로는 어설피고 가끔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녀들의 공연은 아름답게 빛난다.

바로 그런 공연이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에서도 있었다. 3월 10일,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무대를 누빈 일산 와드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시작으로 춤사위가 고왔던 원당 와드의 부채춤, 그리고 불광 와드와 녹번 와드의 열정적인 춤까지 즐거운 공연이 이어졌다. 대미를 장식한 것은 신촌 와드 자매들이 준비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무대 의상까지 맞춰 입은 자매들의 모습에서 오랜 연습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3월 17일 송파 와드에서 있었던 서울 영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기념 행사에서도 자매들의 재능은 빛을 발했다. 수지 와드 자매들이 준비한 합창은 감미로웠고, 성남 와드의 부채춤과 차차차, 그리고 분당 와드의 태극선, 송파 와드의 뱃놀이와 개구리 울동은 아름답고 흥겨웠다. 두 편의 연극, 강동 와드의 ‘솔트레이크 골짜기에서’와 이천 지부의 ‘모세야 잘 있거라’는 공연장 구석구석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부산 스테이크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에서는 스테이크 여성 중창단이 부른 ‘어머니’라는 곡이 귀를 사로잡았다. 금정 와드 자매들은 오랫동안 준비한 시물놀이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그 외에도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준비한 차차차와 해운대 와드의 연극 등 많은 순서들이 박수갈채 속에서 공연되었다.

초등학교부터 대제사까지 지방부 내의 모든 회원들이 모인 부산 서 지방부 상호부조회 창립기념 모임도 성황리에 치러졌다. 2007년 3월 17일에 열린 모임에서는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장로 정원희 형제들이 준비한 사진전이 열렸고, ‘흑설 공주와 백설 공주’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연극과 에어로빅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가장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자매들이 준비한 연극을 가미한 커플 댄스

열기가 뜨거웠던 순서는 지부 대항 노래 자랑이었다. 각 지부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고운 노래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한편, 바다 건너 제주 지방부에서도 상호부조회 창립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있었다. 그 중 특히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던 순서는 개척자들의 강한 신앙과 간증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 연극 '아름다운 사람들' 공연이었다. 제주 지방부 자매들은 한 마음이 되어 개척자들의 험난하고 아름다운 여행 이야기를 표현해 큰 박수를 받았다.

특별한 시도

이번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에서는 특별한 시도도 이어졌다. 마산 스테이크의 경우 각 와드 지역에 맞는 모임을 진행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거라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의견으로 와드별로 기념 모임을 진행했다. 또한 각 와드의 모임과는 별개로 마산 스테이크 내의 풍호, 진해, 통영, 진주 와드와 사천 지부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함께 모여 고아원과 영아원,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서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도 여느 때와 달랐다. 3월 17일 신당 와드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각 와드가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는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스테이크 회장단 메시지와 상호부조회 회원들의 간증을 듣고 교회 영화 '유산'을 보는 것으로 모임을 진행했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상호부조회가 설립된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3월 24일 열린 순천 지방부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은 공부하는 시간이었

다. 순천 지방부에서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남 형제를 초청하여 '어떻게 영어를 잘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매일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김미남 형제의 강의를 통해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새로운 자신감과 의욕을 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렇듯 제165회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모임은 각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진행 방법만 각기 다를 뿐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한결 같았다. 그것은 바로 상호부조회 모토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합창을 할 때도, 연극을 할 때도, 모임이 끝난 후 참석한 회원들에게 뜨거운 밥 한 주걱을 떠 줄 때도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얼굴은 사랑으로 밝게 빛났다. 일찍이 조셉 스미스 회장이 상호부조회를 일컬어 "여성들이 이렇게 조직되고 나서야 교회는 비로소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듯이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교회는 따뜻하고 밝게 빛난다. ■

〈곽채림 기자, 김민정 기자, 김진민 기자, 김정은 기자, 이숙희 기자, 이민주 기자, 이진희 기자, 조연화 기자〉

위쪽부터 순서대로: 부산 서 지방부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공연한 '흑실 공주와 백설 공주,' 부산 스테이크 여성 총창단이 부른 '어머니,' 영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공연한 수지 와드의 상호부조회 자매들, 영동 스테이크 강동 와드 자매들이 준비한 연극 '솔트레이크 골짜기에서,'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기념일을 빛낸 원당 와드 자매들의 부채춤



사진 촬영: 김진민



사진 촬영: 이민주



사진 촬영: 이진희



사진 촬영: 이진희



사진 촬영: 이숙희

“이 교회는 감사의 교회입니다”

- 최윤환 장로 인터뷰



지난 3월 31일 연차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최윤환 형제가 북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 받았다. 최윤환 장로는

1957년 5월 18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73년 12월 침례를 받았다. 그 후 교회에서 성장해오며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교회 내에서 청남 회장, 세미나리 교사, 주일학교 교사, 감독,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선교부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등 여러 직책에서 봉사하였다. 또한 1998년 3월 안양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 받아 2007년 3월까지 봉사하였다. 현재 한국의 재단법인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이사장 및 한국 관리 본부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1982년 9월 25일에 구본경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선빈(대학교 4), 선웅(대학교 1), 그리고 선운(중학교 3)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최 장로는 부름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됩니다.”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그는 “부족한 제가 이 큰 부름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부름에 대한 소감을 대신했다. 최윤환 장로는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으며 자신은 점점 더 성숙해가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면전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교회는 감사의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성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게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 회원들을 보며 마음 깊은 곳으로 부터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간증을 전했다. ■

“마음이 아직도 한국에 있어요”

-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장로 인터뷰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장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석좌교수이자 세계적인 경영학 박사다. 경영학계의 아인슈타인, 경영학계의 현자로 불릴 만큼 그의 명성은 대단하다. 지난 3월 21일, 한국에 강연 차 들른 그를 만났다.

여러 매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던 크리스텐슨 장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유독 한국을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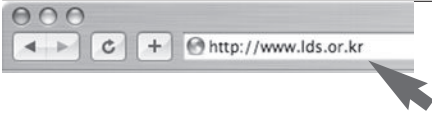
하는 이유는 그의 한국 이름 ‘구창선’ 속에 들어있다.

크리스텐슨 장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72년, 그의 나이 19세 때다. 그는 서울 서 선교부에 전임 선교사로 부름 받아 왔다. 그때 한국 이름도 받았다. 2미터가 넘는 키에 농구 선수로도 활동했던 이 젊은 미국 청년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한국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가난하지만 겸손한 한국 사람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고, 한글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 그는 자신의 한국 이름 석자를 자랑스레 기억하는 것처럼 35년이나 지난 선교사 시절의 추억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 춘천 지역에 교회

가 세워지지 않았던 그 시절, 그는 동반자와 함께 직접 밭로 뛰며 춘천 지부 조식을 도왔다. 페인트 공과 인쇄업자를 직접 찾아 다니며 가게 청소를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교회 현수막을 만들고 전단을 제작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크리스텐슨 장로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결국 그 페인트 공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 페인트 공의 조수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인쇄업자의 가족들과 친구가 교회 회원이 됐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는 현재 미국 동북 지역의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다. 바쁜 저술 활동과 연구 중에도 안식일은 교회 일을 하고,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는 한국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 한국은 어떤 나라이고 한국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 크리스텐슨 장로는 한국어로 조용하고 느리게 말했다. “마음이 아직 한국에 있어요.” 그는 영어로 다시 덧붙였다. “많은 나라 여행해 봤지만 세상의 백성 가운데 한국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친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글썽하고 있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아니 구창선 장로의 혀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기지 못해 서서히 한국말을 잊어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만은 한국에 그대로 남아 한국을 추억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있다. ■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스테이크 <오순임 기자>

작은 음악회 대전 스테이크에서는 3월 31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설양환 스테이크 회장의 감리로 회원 및 구도자들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사진 촬영: 오순임

마산 스테이크 <김민정 기자>

스테이크 대회 3월 10일과 11일 전반기 마산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졸업식 3월 11일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마산스테이크 졸업식이 마산 와드에서 열렸다.



사진 촬영: 김민정

합창 대회 3월 3일 마산 와드에서 합창 대회가 열렸다. <기사 제공: 배성민 형제>

효도 관광 3월 1일, 마산 스테이크에서는 효도 관광이 모임이 있었다.

부산 스테이크 <이인주 기자>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졸업식 3월 10일,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졸업식이 부산 종교 교육원에서 있었다.

서울 스테이크 <곽채림 기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훈련 모임 3월 18일 서울 스테이크 모든 회원이 신당 와드에 모여 선교 사업 훈련 모임을 가졌다.

서울 남 스테이크 대회 <형상일 기자>

스테이크 대회 3월 17일 서울 남 스테이크 센터에서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있었다.

영어 연극 3월 17일 토요일 밤에 회원과 선교사, 그리고 영어 회화반 반원들이 참여한 영어 연극 발표가 있었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대회 <장효진 기자>

스테이크 대회 3월 10일과 11일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서울 북 스테이크 <이숙희 기자>

스테이크 대회 3월 17일과 18일 서울 북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순천 지방부 <조연화 기자>

청녀 야영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순천 지방부 청녀들은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청녀 야영대회 및 새로운 시작 모임’을 가졌다.

안양 스테이크

<나선경 기자>

스테이크 대회 새 스테이크 대회

로운 시작을 알리는 2007년 전반기 안양 스테이크 대회가 3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산본 와드에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인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의 감리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안양 스테이크의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되었다. 지난 9년간 회장으로 봉사했던 최윤환 형제가 해임되고 정동환 형제가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제1보좌는 김윤석 형제가 제2보좌는 박종배 형제가 각각 부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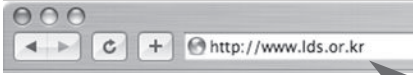
인천 스테이크 <백봉옥 기자>

스테이크 대회 4월 21일과 22일 인천



사진 촬영: 백봉옥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가 감리한 안양 스테이크 대회, 길영권 회장이 감리한 인천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스��이크 대회가 열렸다.

전주 스테이크 <이나나 기자>

청소년 축제 '나이테' 3월 10일 토요일,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서로 가르쳐주면서 새로운 재능을 발전시키는 모임인 '나이테' 행사가 있었다. ■

사진: 이이나나 기자 촬영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283기 12명/해외 2명



김현우 장로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대전 선교부



주현진 장로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부산 선교부



박명진 장로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부산 선교부



최민훈 장로
안양 스테이크
평촌 와드
서울 선교부



박영미 자매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부산 선교부



최승우 장로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부산 선교부



이지은 자매
서울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
부산 선교부



최훈정 자매
카노가파크 스테이크
센 페르난도 밸리
4와드
서울 서 선교부



임효진 자매
마산 스테이크
진해 와드
서울 서 선교부



허효진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대전 선교부



정성희 자매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서울 선교부



박혜원
수원 스테이크
신평 와드
유타주 탬플 스퀘어



정진성 장로
강릉 지방부
원주 지부
부산 선교부



정헌식
강서 스테이크
시흥 와드
캘리포니아
이카디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감독: 이태재(전임: 김재우)

마산 스테이크

진해 와드 감독: 최승대(전임: 이종우)

풍호 와드 감독: 한종완(전임: 정일중)

서울 남 스테이크

신림 와드 감독: 윤세영(전임: 전경일)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감독: 안상현(전임: 김규태)

서울 북 스테이크

금촌 지부에서 금촌 와드로 변경

금촌 와드 감독: 김경환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감독: 구본철(전임: 이경준)

안양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정동환(전임: 최윤환)

제1보좌: 길윤석(전임: 안병철)

제2보좌: 박종배(전임: 길윤석)

금천 1와드 감독: 박일훈(전임: 정동환)